

한국어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연구

李文花*

目次

1. 머리말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4.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분석 결과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글말과 입말 자료를 같이 분석하고 중국인 중급과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보조용언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를 세분화시키고 의미별로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최근에 한·중 대조 연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자료에 기반하여 진행한 보조용언 ‘있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문화(2014)에서는 입말 자료로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있다’의 의미를 언급했는데 의미를 세분화하지 않고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만 나눠서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를 보면 글말과 입말 자료를 통해 보조용언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를 세분화하면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대응표현은 글말과 입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

* 延世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課程

기능이 다른데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의 형태가 같은 경우에는 의미도 같은지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문화(2014)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는 모두 중국어 ‘着’와 대응되었는데 이 ‘着’는 같은 의미인지 살펴봐야 한다.¹⁾

이에 본 연구는 글말 병렬말뭉치 약 26만 어절, 입말 병렬말뭉치 약 23만 어절을 구별해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별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또한 어떤 의미가 많이 쓰이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입말과 글말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별로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어떤 대응표현이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그들 간에 대응 규칙이나 차이점을 밝히겠다. 마지막으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에 대응하는 같은 중국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약 50만 어절 신문기사와 드라마 병렬말뭉치에 기반하여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와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살펴보았다. 신문기사 병렬말뭉치는 약 26만 어절이고 2010년-2012년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제와 뉴스 분야 기사로 구성되었다. <조선일보>의 신문기사 병렬말뭉치는 약 12만 어절이고 <중앙일보>의 신문기사 병렬말뭉치는 약 14만 어절이다. 이 중에 경제 분야와 뉴스 분야의 비율은 각 58%, 42%이다. 드라마 병렬말뭉치는 약 23만 어절이고 SBS 상영한 드라마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16편), ‘오! 마이 레이디’(16편), ‘49일’(20편), ‘부탁해요, 캡틴’(20편), ‘추적자’(16편)으로 구성되었다. 신문이나 드라마 병렬말뭉치의 원문은 한국어이고 그의 번역문은 중국어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대조 방향은 한중대조이다. 말뭉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먼저 Editplus3, U-tagger, U-taggerCorrector 프로그램으로 신문기사나 드라마 병렬말뭉치에서의 ‘-고 있다’와 ‘아/어 있다’가

1) 呂叔湘 외(2002)는 ‘着’는 동작의 진행 또는 상태의 지속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포함되는 구문을 찾아내고 그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몇 번의 수작업을 걸쳐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찾아 분석하였다.

3. 선행 연구

1) 의미 기능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성화(1989), 김영미(1995), 강홍구(1994), 박선옥(2005), 유효홍(2008), Wu JINGJING(2012) 등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김성화(1989)는 지속상 '-고 있다'는 본용언 '있다'의 동작성 존재 의미를 추상화한 것이고, 종결상 '-고 있다'와 '-어 있다'는 상태성 존재 의미가 추상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미(1995)는 '-고 있다'는 적극적, 역동적, 긍정적, 의지적, 현장성의 상태를, '-어 있다'는 소극적, 비의지적, 정태적, 피동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고 있다'는 진행, 습관, 반복 등의 파생 의미들을 지닐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강홍구(1994)에서 '-고 있다'가 진행,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선옥(2003)에서는 '-고 있다'가 진행과 반복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유효홍(2008)은 '-고 있다'는 진행 중인 동작, 반복하는 동작, 행동 결과의 지속 등 의미, '-아 있다'는 동작 완료 후 그 상태의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WU JINGJING(2012)에서 '-고 있다'는 진행 중인 동작, 반복하는 동작, 행동 결과의 지속 등 의미를 나타내고 '-어 있다'는 어떤 행위가 끝난 후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상태 지속의 미완료 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봤는데 학자들은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를 표현은 달리 하였지만 뜻이 비슷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 있다'와 '-아/어 있다' 의미를 다시 정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구하겠다. 즉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 동작의 반복, 동작의 결과 지속

3가지 의미로, ‘-아/어 있다’는 동작 완료 후의 상태 지속의 의미로 분석하겠다.

2) 중국어의 대응표현

‘-고 있다’와 ‘-아/어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에 관한 연구는 유효홍(2008), 여상(2009), wu jingjing(2012), 김정애(2013), 왕정정(2014), 진려하(2014), 이문화(2014) 등이 있다. 유효홍(2008)에서 ‘-고 있다’의 동작의 진행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在, 正在, 着’ 3가지 표현, 동작의 반복의 의미는 대응 중국어 표현은 ‘在, 무표지’ 2가지 표현, 행동 결과의 지속의 의미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着’ 1 가지, ‘-아 있다’의 상태 지속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在, 着, 了’ 3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여상(2009)에서 ‘-고 있다’에 대응하는 중국어를 부사 ‘在, 正, 正在’ 시태조사 ‘着’, 어기조사 ‘呢’ 3가지라고 제시하였다. WU JINGJING(2012)에서는 행위가 진행을 의미한 ‘-고 있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在, 正, 正在, 呢, 着’ 5가지, 동작의 반복이나 행동 결과의 상태 지속을 의미한 ‘-고 있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在, 着’ 2가지, ‘-아 있다’의 중국어 표현은 ‘着, 在, 了’ 3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김정애(2013)에서는 ‘-고 있다, -아/어 있다’ 구문과 중국어 ‘着’ 구문을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왕정정(2014)은 ‘-고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在, 正在, 呢, 着’ 4가지, ‘-어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在, 着, 了’ 3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진려하(2014)에서는 ‘-고 있다, -어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在, 正在, 呢, 着, 了’가 있다고 보았다. 이문화(2014)는 입말자료로 ‘-고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在, 着, 呢, 正在, 正...呢, 무표지’의 6가지, ‘-아/어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了, 着, 무표지’의 3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을 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학자에 따라 ‘-고 있다’와 ‘-아/어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학자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着’는 6번, ‘在’, ‘正在’는 각 5번, ‘呢’는 3번, ‘正’는 2번, ‘正...呢’, 무표지는 각 1

번이었다.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在'는 2번, '着'는 4번, '了'는 3번, '무표지'는 1번이었다. 이를 통하여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유표지 중국어 대응표현은 무표지 중국어 대응표현보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유표지 중국어 대응표현은 글말과 입말에서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그 실제자료에서의 사용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에 대응되는 유표지 중국어 대응표현의 유형, 글말과 입말에서의 사용 양상의 차이점도 살펴보려고 한다.

4.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신문기사와 드라마 병렬말뭉치는 약 50만어절로 구성되었다. 말뭉치에서 추출한 '-고 있다'와 '-아/어 있다' 각 693개, 140개 구문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문기사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에 따른 분석 결과

신문기사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를 의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고 있다'와 '-아/어 있다'를 의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의미	중국어 대응표현	빈도	비율
-고 있다	동작의 진행	在	39	9%
		正在	189	42%
	동작의 결과 지속	着	31	7%
		了	81	18%
-아/어 있다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了	67	15%
		着	40	9%
합계			447	100%

위 표와 같이 ‘-고 있다’의 의미는 총 두 가지, ‘동작의 진행, 동작의 결과 지속’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작의 반복’의 의미가 출현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글말인 신문기사에서는 한국어 ‘-고 있다’가 ‘동작의 진행’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고 다음은 ‘동작의 결과 지속’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동작의 진행의 ‘-고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빈도순으로 ‘正在, 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글말에서 동작 진행의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正在’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을 보인다. 동작의 결과 지속의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조사 ‘着’, ‘了’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조사 ‘了’가 글말에서 비교적 고빈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조사 ‘着’의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그다음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도 ‘着’, ‘了’로 출현했다. ‘-고 있다’와 ‘-아/어 있다’는 다른 한국어 표현인데 중국어 대응표현에서는 같은 형태의 조사 ‘着’, ‘了’로 사용됨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동작의 결과 지속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고 있다’의 동작의 진행 의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부사 ‘正在, 在’도 동작의 진행의 의미로 사용한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正在: [동작 진행의 시간과 상태를 모두 강조함]

- (1) ㄱ: 코오롱측은 현재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 하고 있다.

ㄴ: 可隆方面目前正在和中方合作伙伴進行協商。

〈조선일보 경제〉

- (2) ㄱ: 김정일은 최근 김정일과는 다른 파격적인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ㄴ: 金正恩最近正在進行同金正日不同的破格的對外活動。

〈중앙일보 뉴스〉

예문에서 보듯이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부사 '正在'는 동사 '進行(진행하다)'앞에 있고 그 앞에 시간부사 '目前(현재)', '最近(최근)'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중국어 부사 '正在'는 항상 시간의 뒤에 붙어 같이 쓰이는 현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어 문장에서 시간 부사와 같이 있는 '-고 있다'의 문장에서의 '-고 있다'는 중국어로 '正在'로 번역하는 규칙을 밝혔다. 이 때 '正在'는 동작이 진행되는 시간 '目前(현재)', '最近(최근)'과 동작의 '進行(진행하다)'의 상태를 모두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 賴帆(2011)에서도 '正在'는 동작 시간을 강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작의 진행도 강조한다고 하였다.

② 在: [동작의 진행]

(3) ㄱ: 1층에서는 20여 명의 현지인이 쟁반을 들고 빵을 고르고 있었다.

ㄴ: 在1層有20多名当地人拿着盤子在選麵包。

〈중앙일보 경제〉

(4) ㄱ: 해외 유명 상표뿐 아니라 국내 브랜드 짝퉁 적발도 늘고 있다.

ㄴ: 不僅是海外著名品牌, 國內品牌的仿制品揭發也在增加。

〈중앙일보 뉴스〉

예문(3)과 같이 한국 문장에서 '-고 있다'는 타동사 '고르다'뒤에 붙어서 사용하지만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부사 '在'는 동사 '選(고르다)'앞에 붙어 쓰인다. 이 때 '在'는 동작 '選(고르다)'의 진행만 강조한다. 예문(4)에서의 '늘다'는 자동사이고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부사 '在'이다. '在'는 동사 '增加(늘다)'의 진행 상태를 강조한다. '-고 있다'의 동작의 진행 의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正在'와 '在'가 의미 차이가 있지만 서로 바뀌서 쓸 수 있다.

다음 ‘-고 있다’의 동작의 결과 지속 의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조사 ‘着, 了’인데 ‘着’만 동작의 결과 지속 의미를 가지고 ‘了’는 동작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결과를 예문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③ 着: [상태 지속]

- (5) ㄱ: 리튬 시장은 200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ㄴ: 進入2000年后, 鋰市場一直保持着年均6%的增長。

〈중앙일보 경제〉

- (6) ㄱ: 일부 제품은 한국어 라벨을 그대로 달고 있다.

ㄴ: 部分產品都原封不動地貼着韓文標籤。

〈중앙일보 경제〉

예문(5)와 (6)은 같은 동작의 결과 지속 의미를 지니는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이 ‘着’도 결과의 상태 지속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의 앞의 동사 ‘기록하다’와 ‘달다’가 다르다. ‘기록하다’의 동사는 자체가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着’를 생략해도 성립된다. 반면 ‘달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달다’와 같은 동사는 행위가 끝난 후 상태를 지속한다.

④ 了: [동작의 완료 의미]

- (7) ㄱ: 최근 경제난이 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 据悉, 最近的經濟困難對投保也造成了不利影響。

〈중앙일보 경제〉

- (8) ㄱ: VIP 고객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ㄴ: 因為他們把VIP顧客的長相和名字都記住了, 所以才叫得出來。

〈중앙일보 경제〉

예문 (7)과 (8)에서 동작의 결과 지속 의미를 가진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了'은 동작의 완료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한국어 '-고 있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사용하는 구조가 같은데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구조가 다르다. 예문(7)은 '동사(造成)+了+목적어(影響)'구조이고 예문(8)은 '동사(記)+보어(住)+了'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了'의 문장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아/어 있다'는 어떤 행위가 끝난 후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 '了, 着'를 다음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⑤ 了: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 (9) ㄱ: 물론 이런 낙관론은 길게 내다본 것이다. 국내 IT업체의 희망 섞인 바람도 담겨 있다.

ㄴ: 當然這樣的樂觀論是從長遠出發的, 里面暗含了韓國IT企業的希望。

〈중앙일보 경제〉

- (10) ㄱ: 상하이 차오바오점 바로 옆엔 더페이스샵·이랜드·미스터피자 등 다 양한 한국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ㄴ: 上海漕宝店的旁邊還開設了The Face Shop、衣戀、Mr.Pizza等多家韓國品牌的商場。

〈중앙일보 경제〉

예문 (9), (10)과 같이 한국어 문장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了'이다. 한국어 문장은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의 문장이고 그의 중국어 문장도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의 문장이다. 그의 구조는 '동사+了+목적어'이다. 그리고 예문(9)의 동사 '담기다'는 피동사이고 예문(10)의 '입점하다'는 자동사이다.

⑥ 着: [상태 지속]

(11) ㄱ: 여자 아이들은 D군을 향해 “옷에 뭐가 묻어 있다”, “항상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수군거렸다.

ㄴ: 女同學們在背後對D某指指点点, “衣服上粘着什麼東西”、“總穿同樣的衣服”。

〈조선일보 뉴스〉

(12) ㄱ: 이들의 뒤에는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었던 ‘점령하라! 2012!’가 쓰인 걸개그림이 걸려 있었다.

ㄴ: 他們背後挂着寫有“占領! 2012!”的挂畫, 這是此次全黨大會的標語。

〈조선일보 뉴스〉

예문 (11)과 (12)에서 보듯이 한국어 문장에서 ‘-아/어 있다’는 동사 ‘묻다’와 ‘걸리다’뒤에 붙어 사용하고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모두 ‘着’이다. ‘着’는 동작 ‘粘(묻다)’와 ‘挂(걸리다)’의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어 동사 ‘묻다’와 ‘걸리다’의 차이가 있다. ‘묻다’는 순간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이고 ‘걸리다’는 ‘걸다’의 피동사이다.

(3) 요약

앞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분석결과

한국어 표현	한국어 의미	중국어 대응표현	중국어 대응표현의 의미
-고 있다	동작의 진행	在 正在	동작의 진행
	동작의 결과 지속	着 了	상태 지속 동작의 완료
-아/어 있다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了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着	상태 지속

분석결과, '-고 있다'의 의미에 따라 대응되는 중국어도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동작의 진행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모두 부사이고 동작의 결과 지속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모두 조사이다. 동작의 진행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 부사 '在, 正在' 두 가지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바꿔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즉, '在'는 동작을 진행하는 것만 강조하는 반면, '正在'는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과 그 동작을 진행하는 것을 모두 강조한다. 동작의 결과 지속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하나는 '着'인데 이것은 상태 지속의 의미를 뜻한다. 하지만 또 하나는 '了'인데 이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한다. '-아/어 있다'가 한 가지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사 '了'이다. 이는 동작을 완료한 후에 그 상태 지속의 의미를 뜻한다. 또 하나는 '着'이고 이는 상태 지속 의미를 뜻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형태와 의미가 다르지만 그들의 같은 중국어 대응표현 '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태가 같은 '了'가 있지만 그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了'는 완료의 의미를 뜻하는 어기 조사와 동태조사 2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대응되는 '了'는 모두 동태조사이다. 또한, 다른 점은 '-고 있다'에서 '동사+보어+了', '동사+了+목적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아/어 있다'에서 '동사+了+목적어'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어 있다'에서만 피동사가 나타난 현상을 보인다. 예문 (9)와 (12)에서 '담기다, 걸리다'로 출현하였다. 이런 결과는 김영미(1995)에서 '-어 있다'는 소극적, 비의지적, 정태적, 피동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2) 드라마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에 따른 분석결과

드라마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를 의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고 있다’와 ‘-아/어 있다’를 의미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어 표현	의미	중국어 대응표현	빈도	비율
-고 있다	동작의 진행	在	226	60%
		正在	19	5%
		呢	19	5%
		正...呢	4	1%
		在...呢	6	1%
	동작의 결과 지속	着	79	20%
-아/어 있다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了	26	6%
		着	7	2%
합계			386	100%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 있다’의 의미는 총 두 가지, ‘동작의 진행, 동작의 결과 지속’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작의 반복’의 의미가 출현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입말인 드라마에서 한국어 ‘-고 있다’의 ‘동작의 진행’ 의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 ‘동작의 결과 지속’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동작의 진행의 ‘-고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빈도순으로 ‘在, 正在, 呢, 正...呢’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在’는 실제 입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동작의 결과 지속의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조사 ‘着’가 나타났다.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了’, ‘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 있다’와 ‘-아/어 있다’는 형태와 의미가 다르지만 중국어 대응표현은 동일한 조사 ‘着’가 쓰임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동작의 결과 지속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고 있다’의 동작의 진행 의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在, 正在, 呢, 正...呢’도 동작의 진행의 의미로 사용한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⑦ 在: [동작의 진행]

(13) ㄱ: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ㄴ: 爸爸, 現在你在做什么?

〈49일 15회〉

(14) ㄱ: 우리 지금 영화 찍고 있은 것 같지 않니?ㄴ: 我們不像在拍電影嗎?

〈49일 1회〉

예문 (13)과 (14)에서 보듯이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在'이다. '在'는 부사이고 동사 앞에 쓰면 그 동작의 진행을 강조한다. 즉 '做(하다)'와 '拍(찍다)'의 앞에 붙어서 두 동작이 지금 진행하는 중이라는 의미를 뜻한다.

⑧ 正在: [동작의 시간과 진행을 모두 강조함]

(15) ㄱ: 찾고 있잖아요?ㄴ: 我不是正在找嗎?

〈오마이레이디 14회〉

(16) ㄱ: 나 안 죽었어. 아니, 죽었을 리가 없어. 나, 지금 수술받고 있어.ㄴ: 我沒死, 不, 是根本就不可能死, 我現在正在接受手術。

〈49일 1회〉

예문 (15), (16)과 같이 '-고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正在'이다. '正在'는 부사이고 동사 앞에 붙어서 그 동사의 동작이 진행하는 것과 진행하는 시간을 함께 강조하고 보통 시간과 같이 출현한다. 예문 (15)처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동작의 진행하는 시간이 '지금'의 의미를 가진다. 즉, '正在'는 '找'와 '接受手術'의 동작의 진행과 그의 시간을 모두 강조하는 것이다.

⑨ 呢: [동작의 진행]

(17) ㄱ: 오디션 볼 때까지 시간 좀 때우고 있었어. 누나 지금 정말 예쁘다.

ㄴ: 趁試鏡沒開始, 在這兒打發時間呢。姐姐 你真的好漂亮。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3회〉

(18) ㄱ: 그런데 애는 어디서 뭘 먹고 있는 거야?

ㄴ: 不過她在哪儿吃什么呢?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3회〉

예문 (17)과 (18)에서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은 ‘呢’이다. ‘呢’는 어기 조사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작 진행하는 중의 의미를 뜻한다. ‘呢’는 어기조사기 때문에 항상 문장 끝에 쓰인다.

⑩ 在...呢: [동작의 진행]

(19) ㄱ: 미호야, 너는 울고 있을 텐데 이제는 네가 울어도 비가 오지 않아.

ㄴ: 尾狐, 你一定在哭呢, 如今就算你在哭也不會下雨了。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6회〉

(20) ㄱ: 대표님하고 투자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ㄴ: 代表跟投資方在談話呢。

〈오마이레이디 14회〉

예문 (19)와 (20)에서 ‘-고 있다’는 중국어의 대응표현은 부사도 조사도 아니고 부사와 조사의 결합표현이다. 즉 동작의 진행 중의 의미를 지닌 ‘在...呢’이다. 이때 중국어 동사는 ‘在...呢’의 중간에 있어 사용한다. 이는 회화에 서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呢’는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하지 않을 경우 ‘청자의 관심과 주의를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다.

⑪ 正...呢: [동작의 시간과 진행을 모두 강조함]

(21) ㄱ: 성민우 씨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ㄴ: 晨敏字先生現在正刻苦訓練呢。

〈오마이레이디 5회〉

(22) ㄱ: 네, 실장님. 지금 가고 있어요.

ㄴ: 是 室長我正過去呢。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3회〉

예문 (21)과 (22)에서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正...呢'이다. 중국어 동사는 '正...呢'의 중간에 두고 사용한다. '正...呢'는 동작의 시간과 진행하는 것을 모두 강조한다. 이 또한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呢'는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하지 않을 경우 '청자의 관심과 주의를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다.

다음 '-고 있다'의 동작의 결과 지속 의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조사 '着'인데 '着'도 상태 지속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결과를 예문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⑫ 着: [상태 지속]

(23) ㄱ: 만났을 때 반지 같은 거 안 끼고 있었어.

ㄴ: 今天見面的時候, 他沒戴着什麼戒指啊。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6회〉

(24) ㄱ: 그러자, 받으리 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때 너는 죽는 거야.

ㄴ: 就這麼辦. 我會來取的, 等着吧, 到時你就會死。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6회〉

예문 (23), (24)와 같이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조사 '着'이다. '着'는 동사 뒤에 붙어서 사용하여 그 동작의 지속 상태를 의미한다. 즉 '戴(끼다)'와 '等(기다리다)' 뒤에 '着'가 붙어서 '戴(끼다)'와 '等(기다리다)'의 지속 상태를 뜻한다.

(2)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아/어 있다'는 어떤 행위가 끝난 후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 ‘了, 着’를 다음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⑬ 了: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25) ㄱ: 안에 컵도 많이 쌓여 있던데.

ㄴ: 我看里面堆了好多杯子呢。

〈오마이레이디 4회〉

(26) ㄱ: 왜 안 자고 나와 있어?

ㄴ: 怎么不睡覺出來了?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4회〉

예문 (25), (26)과 같이 한국어 문장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了’이다. 한국어 문장은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의 문장이고 그의 중국어 대응 문장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의 구조는 ‘동사+了+목적어’이나 ‘동사+了’ 두 가지이다. 그리고 예문(25)의 동사 ‘쌓이다’는 피동사이고 예문(26)의 ‘나오다’는 자동사이다.

⑭ 着: [상태 지속]

(27) ㄱ: 아, 그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사각지대가 안 보이지 않니?

ㄴ: 那樣緊貼着不是看不到后照鏡了嗎?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8회〉

(28) ㄱ: 숨어 있어.

ㄴ: 藏着.

〈추적자 5회〉

예문 (27)과 (28)에서처럼 ‘-아/어 있다’는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조사 ‘着’이다. ‘着’는 동작 ‘貼(붙다)’와 ‘藏(숨다)’뒤에 붙어서 사용할 때 그 앞의 동사의 상태를 지속하는 의미가 있다.

(3) 요약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표현	한국어 표현의 의미	중국어 대응표현	중국어 대응표현의 의미
-고 있다	동작의 진행	在	동작의 진행
		正在	
		呢	
		正...呢	
		在...呢	
	동작의 결과 지속	着	상태 지속
-아/어 있다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了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着	상태 지속

분석결과, '-고 있다'의 의미에 따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각각 다르다. 동작의 진행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부사인 '在, 正在'도 있고 조사인 '呢'도 있고 부사와 조사를 결합한 표현 '正...呢, 在...呢'도 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바꿔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즉, '正在'는 동작이 진행되는 시간과 동작의 진행 상태를 모두 강조하고 '在'는 동작을 진행 중임을 강조한다. '正...呢, 在...呢'에서의 '呢'를 생략해도 된다. 이때의 '呢'는 관심과 주의를 이끄는 의미가 있다. 동작의 결과 지속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 '着'는 상태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徐昌火(2004)에서 중국어에서 행위의 진행의 의미가 나타나는 표현은 '在', '正在', '呢', '正...呢', '在...呢' 등 여러 가지 있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正...呢'와 '在...呢'의 차이는 '正'와 '在'의 차이이다. 즉 '正'는 동작의 시간을 강조하고 '在'는 동작의 진행을 강조한다.

또한,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사

‘了’이다. 이는 ‘-아/어 있다’의 의미와 같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동작의 완료 후 상태 지속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着’이고 이는 상태 지속 의미를 뜻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형태와 의미가 다르지만 그들의 같은 중국어 대응표현 조사 ‘着’가 있음을 밝혔다. 완료의 의미를 뜻하는 어기 조사와 동태조사 ‘了’가 있는데 여기서 대응되는 ‘了’는 모두 동태조사이다. ‘-아/어 있다’에서 ‘동사+了+목적어’, ‘동사+了’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어 있다’에서만 피동사가 나타난 현상을 보인다. 예문 (25)에서 ‘쌓이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김영미(1995)에서 ‘-어 있다’는 소극적, 비의지적, 정태적, 피동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3) 글말과 입말에 대응양상의 차이

(1) 대응 양상의 빈도 비율 비교

글말과 입말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빈도 및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빈도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대응 양상의 빈도 비율 비교

한국어 표현	의미	중국어 대응표현	신문기사(%)	드라마(%)
-고 있다	동작의 진행	在	9	60
		正在	42	5
		呢	X	5
		正...呢	X	1
		在...呢	X	1
	동작의 결과 지속	着	7	20
-아/어 있다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了	18	X
		了	15	6
		着	9	2

분석 결과, 신문기사나 드라마에서 동작의 진행 의미 '-고 있다'는 '在, 正在'와 모두 대응되는 현상을 보인다. 신문기사에서 '正在'의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드라마에서 '在'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동작의 진행 의미 '-고 있다'는 글말에서 '正在', 입말에서 '在'와 많이 대응되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신문기사보다 드라마에서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밝혔다. 특히 회화에서 자주 나타난 '呢, 正...呢, 在...呢' 표현은 입말에서만 사용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문기사나 드라마에서 동작의 결과 지속 의미 '-고 있다'는 '着'와 모두 대응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문기사에서 '了'와도 대응될 뿐만 아니라 '了'이 오히려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着'만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이나 드라마에서 '-아/어 있다'에 대응되는 동일한 중국어 표현은 '了, 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에서는 모두 '了, 着'가 있는데 의미 또한 같은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2) 대응 양상의 의미 비교

글말과 입말에서 '-고 있다'와 '-아/어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의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대응 양상의 의미 비교

한국어 표현	의미	중국어 대응표현	신문기사 중의 의미	드라마 중의 의미
-고 있다	동작의 진행	在	동작의 진행	동작의 진행
		正在	동작의 진행	동작의 진행
		呢	X	동작의 진행
		正...呢	X	동작의 진행
		在...呢	X	동작의 진행
	동작의 결과 지속	着	상태 지속	상태 지속

		了	동작의 완료	X
-아/어 있다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了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着	상태 지속	상태 지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문기사나 드라마에서 동작 진행 의미의 ‘-고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부사 ‘在’와 ‘正在’는 모두 동작의 진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만 사용된 중국어 대응표현에는 조사 ‘呢’가 있으며, 부사와 조사의 결합 표현인 ‘正...呢, 在...呢’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표현한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드라마에서 ‘-고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형태와 품사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문기사나 드라마에서 동작의 결과 지속 의미의 ‘-고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조사 ‘着’도 상태 지속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문기사에서만 출현된 중국어 대응표현 ‘了’는 동작의 완료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 신문기사나 드라마에서 ‘-아/어 있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了’는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 ‘着’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같은 중국어 대응 표현 ‘着’는 의미도 같고 형태도 같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한국어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같은 중국어 대응 표현 ‘了’는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呂叔湘 외(2002)는 ‘着’는 동작의 진행 또는 상태의 지속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着’의 상태 지속 의미만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말이나 입말에서는 ‘-아/어 있다’에서만 피동사가 나타난 현상을 보인다. 이런 결과는 김영미(1995)에서 ‘-어 있다’는 소극적, 비의지적, 정태적, 피동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고 있다’와 ‘-아/어 있다’를 의사소통할 때 그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글말과 입말의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신문기사와 드라마 병렬말뭉치로 한국어 보조 용언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에서의 쓰임을 분석하여 그에 해당하는 중국어 대응표현의 빈도, 의미까지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글말과 입말을 구별해서 대응되는 양상도 밝혔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먼저,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 '동작의 반복', '동작의 결과 지속'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글말과 입말에서 모두 '동작의 진행'과 '동작의 결과 지속' 2가지 의미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작의 진행 의미 '-고 있다'는 글말에서 '正在', 입말에서 '在'와 많이 대응되어 사용하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글말보다 입말에서 '동작의 진행'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도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呢, 正...呢, 在...呢' 표현은 입말특성에 맞게 회화에서만 사용하는 현상을 밝혔다. 한국어 '-고 있다'는 보조 용언이지만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부사, 조사, 부사+조사' 3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의 '正'는 글말이나 입말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낮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입말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표현 '在...呢'를 밝혔다.

다음으로, 글말이나 입말에서 '동작의 결과 지속'의 의미로 사용하는 빈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현상도 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고 있다'와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품사와 의미가 서로 다르고 글말과 입말에서의 대응 양상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입말보다 글말에서 나타난 대응 양상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글말에서는 '着', '了'가 출현하였지만, 입말에서는 '着'만 출현하였다.

마지막, 입말보다 글말에서 '-아/어 있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 '了, 着'은 신문이나 드라마에서 같은 형

태와 의미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말이나 입말에서 ‘了’는 모두 고빈도로 사용하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在’는 글말이나 입말에서는 모두 출현하지 않음으로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글말과 입말의 병렬말뭉치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고 있다’와 ‘-아/어 있다’의 의미 양상과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복잡한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과서나 사전 편찬에서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대조 분석과 통번역 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글말과 입말에 따라서 차별화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문기사와 드라마 병렬말뭉치의 규모를 확대시키면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강홍구, 「현대 국어의 보조동사 연구」, 『한어문교육』2(1-12), 1994.
- 김성화, 『현대 국어 상 연구』, 한신문화사, 1990.
- 김영미, 「'있다'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전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정애, 「한국어 결과상 '-고 있다, -아/어 있다'구문과 중국어 '着'구문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중태, 「'-아 있다', '-고 있다' 조동사 구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13(479-499), 1986.
- 김종혁,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상 표시 대응관계 고찰」, 『중국어학논집』27(23-29), 2009.
- 김차균, 『우리말 시제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1999.
- 김천학, 「現代國語 '있다'와 관련된 相的 呼應에 대하여」, 『語文研究』37(111-131), 2009.
- 민경모, 「병렬말뭉치의 개념 및 구조에 관한 몇 문제」, 『언어사 실과 관점』25(41-70), 2010.
- 박덕유, 『한국어 相의 이해』, 제이앤씨, 2007.
- 박선옥, 『국어 보조동사의 동사와 의미연구』, 역락: 도서출판, 2005.
- 박진호, 「시제, 양태, 상」, 『국어학』60(289-322), 2011.
- 신선경,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2002.
- 신자영, 「병렬 코퍼스 및 학습자 코퍼스를 이용한 중간언어 연구법」, 『언어사 실과 관점』25(71-87), 2010.
- 여상, 「韓國語 助動詞 句文의 中國語 翻譯 樣相 : '(고) 있다', '(어) 있다'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왕위, 「韓國語 '있다'在漢語中的對應研究」,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왕정정, 「보조용언구성 '-아 있다'와 '-고 있다'의 분포 제약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유효홍, 「한국어 '있다'와 해당 중국어 표현의 대조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문화, 「한국어 '있다'와 '없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한·중 드라마 병렬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사 실과 관점』34(189-214), 2014.
- 진려하,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 '-고 있다', '-어 있다'와 중국어 대응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한동완, 「'-고 있-' 구성의 중의성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5(215-248), 1999.
- WU JINGJING, 「한국어 '있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戴耀晶, 『現代漢語時體系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7.
- 呂叔湘 외,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2002.
- 潘文娛, 『談談'正', '在'和'正在'』, 新星出版社, 2001.
- 龔千炎, 『漢語的時相時制時態』, 商務印書館, 1995.
- 郭志良, 「時間副詞正, 正在和在的分布情況續」, 『世界漢語教學』2(167-172), 1992.
- 侯學超, 『現代漢語虛詞詞典』, 北京大學出版社, 1998.
- 胡裕樹·范曉, 『動詞研究』, 河南大學出版社, 1995.
- 賴帆, 「時間副詞 正, 在, 正在与着共現与替換條件研究」, 華東師範大學碩士論文, 2011.
- 黎錦熙, 『新著國文語法』, 商務印書館, 1998.
- 陸儉明, 「着(·Zhe)'字補議」, 『中國語文』5(331-336), 1999.
- 錢乃榮, 「体助詞 '着' 不表 進行的意義」, 『漢語學習』4(36-44), 2002.
- 王還, 「說'在'」, 『中國語文』2(25-26), 1957.
- 徐昌火, 『HSK漢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2004.
- 張黎, 「'着'的語義分布及其語法意味」, 『語文研究』1(6-12), 1996.

Abstract

Korean '-고 있다'와 '-아/어 있다' and Their Chinese Corresponding Phrases

Li, Wen Hua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references on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subdividing the meanings of auxiliary predicates of '-고 있다'와 '-아/어 있다' for Chinese beginner and intermediat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nd examining their respective Chinese corresponding phrases and meanings. Despite the numerous Korean-Chinese contrastive studies recently, there are not many convincing studies on the '-고 있다' auxiliary predicat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t examined 50,000 syntactic words from the parallel corpus, differentiated the written words from the spoken ones, analyzed the usage aspects of the meanings of '-고 있다'와 '-아/어 있다' respectively, and identified the meanings which are not commonly used. Second, the respective meanings of '-고 있다'와 '-아/어 있다' and their corresponding Chinese phrases in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were scrutinized. Third, similar Chinese corresponding phrases and those corresponding phrases that are not usually used were picked out and further delved into. Finally, rules and differences the emerged from such corresponding phrases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This study is relevant in three ways. First, it clarified the complex meanings of Korean '-고 있다'와 '-아/어 있다' and their corresponding Chinese phrases by utilizing the parallel corpus method which incorporates bo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Second, it can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a textbook or a dictionary compilation,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Finally, it can also positively contribute to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contrastive studies specifically as a basic resource in differentiating written language from the spoken one.

Key words : '-고 있다', '-아/어 있다', 在, 了, 着

투 고 일 : 2015. 1. 10. / 심 사 일 : 2015. 1. 15. ~ 2015. 2. 15. / 게재확정일 : 2015. 2. 16.